

# 완도군, 우리여행 GOGO 페스티벌 참가

##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및 관광지·특산품 홍보

완도군은 '2019 청정완도 가을 빛여행'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우리여행 GOGO 페스티벌'에 참가해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쳤다.

서울시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일 관계 악화 등에 따른 관광시장 위축에 대응하고 가을여행 성수기를 맞아 국내 여행 활성화와 지역 상생을 위한 박람회로서 완도군은 서울시와 우호 교류협약이 체결된 지자체 자격으로 참가했다.

완도군은 청정바다 완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전시하고 특산물 시식행사 등을 통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으며, 완도군 캐릭

터인 팡이가 행사장을 돌며 축제와 관광지를 홍보했다.

특히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19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축제'를 알리기 위해 축제 홍보 물과 관광 안내물을 배부하고, 행운의 룰렛 돌리기, 팡이와 사진 찍기 SNS 이벤트를 진행하여 다시마 비누 등 완도 특산물 증정, 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2019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기간 동안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페스티벌에 참여한 여행사 부스를 직접 찾아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을 홍보했다.

여행사에 근무한다는 김모 씨는



완도군의 관광지과 관광 상품을 보여 "완도가 수도권에서 먼 곳이라 여행 코스에 넣기 힘들었는데, 홍보 내용을 보니 관광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1순위 여행지라며, 이번 기회에 완도군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에서는 앞으로도 사계절 관광도시, 해양관광도시 완도에 걸맞게 다양한 관광 콘텐츠 마련과 박람회 참가,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 함평군 상하수도 정비 사업비 564억 확보

함평군이 지역 상·하수도 정비 사업에 총 56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이번 사업에는 오는 2024년까지 지역 4개 지구에 총 564억 원이 투입된다.

당장 내년부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하수관로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등이 추진된다.

함평읍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31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시설 개량사업으

로, 40km에 달하는 노후 상수관망 구간을 집중 정비한다.

손불·나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는 총 사업비 104억 원을 투입해 10.4km 구간의 하수관로를 정비한다.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과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는 각각 80억 원과 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함평읍 내교리 일원 우수관로 6.7km를 정비하고 하수처리시설 75톤 증설과 관로 5.5km를 정비한다.

함평=김광춘 기자

## 장성군, 수확기 농작물 관리 철저 당부



장성군이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안전한 농약 사용 및 열과 방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과와 감 등 과수는 과실의 자람이 끝나면서 성숙에 들어가 당분이 높아지므로 수확 20일 전부터 물 공급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과수원 주변에 점무늬낙엽병, 갈색무늬병, 겹무늬썩음병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예방하고 과실에 병반이 보일 때는 적용약제를 방제하되 수확기의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태풍으로 부러지거나 찢어졌던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를 바르고, 쓰러진 나무는 토양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바로 세우고 보조지주를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채소와 같은 발작물이 쓰

러졌을 경우 신속히 세워주고,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는 흙을 보완한다. 또한 생육이 불량한 포장에는 병해충 방제를 기준에 맞게 실시한다.

태풍 피해로 침수된 벼의 경우 가능한 일찍 물을 빼주고, 식물체에 묻은 흙 양과 이물질을 깨끗한 물로 씻어준 후 새 물로 갈라대기를 하여 활력을 촉진한다. 이삭도열병 등 병해가 우려되는 논에는 적용약제를 살포한다.

논물을 뺄 때는 시기가 중요하다. 벼농사 논물을 너무 일찍 빼게 되면 벼 알이 잘 여물지 않아 금간 쌀이나 푸른 쌀 등이 많아져 품질이 떨어지게 되므로 벼 베기에 지장이 없는 한 물 빼는 시기를 늦춰야 한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10월 경 기상상이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농약 안전사용 및 생육후기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농업인들의 영농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 '무안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접수

무안군은 무안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2019 무안군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그동안 지역 대표 관광기념품의 부재로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간직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이 없어 지역 관광홍보에 어려움이 많아 지역 대표 관광기념품 개발과 민·공예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었다.

공모분야는 일반분야(완제품)와 아이디어분야(시제품)로 나뉘어 실시되며

일반분야는 지역을 상징·대표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상품성이 뛰어난 관광기념품 중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하여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완제품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분야는 향후 상품화하여 판매가 가능한 시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응모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

구나 접수 가능하며 업체도 참여 가능하다.

다만 다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제품, 이미 상품화된 유사제품 및 모방품, 생산 불가능한 제품, 개발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제품 등은 제한된다.

공모전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무안군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해 직접 제출해야 된다.

군에서는 접수된 기념품을 대상으로 10월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를 통해 일반상품 분야는 대상(1점) 500만원, 최우수상(1점) 200만원, 우수상(2점) 100만원, 장려상(4점) 50만원, 아이디어 분야는 대상(1점) 100만원, 최우수상(1점) 50만원, 우수상(1점)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상작은 향후 무안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판매되어 지역문화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강진군, 문화재 정비 숙원사업 대폭 해결

강진군이 내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가 문화재청에 대거 반영됨에 따라 그동안 노력해왔던 숙원사업들을 대폭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반영된 사업은 '전라병영성' 객사 및 연희당 복원과 올해 3월 신규 지정된 '백운동 원림' 정비사업, 무위사 대체법당 건립사업으로 강진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로 건의해왔던 사업들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공약사업인 '전라병영성' 조기복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7월에도 직접 문화재청장을 찾아 건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적극적 노력의 결과 내년

도 객사 및 연희당 복원, 해자 정비를 위한 설계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전라병영성 내부 건물지 복원의 큰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 명승으로 지정된 '백운동 원림'은 관리사 설계비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반영됨으로써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 무위사 대체법당은 그동안 극락보전(국보 제13호)을 법당으로 이용함으로써 훼손이 심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보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대체법당 건립 설계비를 확보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진도군, 2020 무형유산도시 선정



진도군이 2020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지원 받는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문화재청 산하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 무형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무형유산의 자

생력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진도군과 국립무형유산원은 지역 무형유산 보호와 활용, 체계적인 무형유산 보존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민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품구인 진도군의 유·무형유산을 바탕으로 ▲남종화 미술을 주제로 한 특별전 개최 ▲문화예술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무형유산 공연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학술대회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진도=조성용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